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먼저 내민 손,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의 마중물

오덕성
우송대 총장

더위를 피하려고 아내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고 휴가를 떠나지 않아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면 새삼 행복한 기분이 들곤 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즐거움을 느낄 거라는 필자의 생각과는 달리 주위에는 조금은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곤 한다. 마주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커플, 식사하는 부모와 대화는커녕 SNS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 등이다.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면서 스마트폰과 SNS의 과도한 사용이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8억 명이 하루에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대별 SNS 이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용률이 1~2%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대화가 단절된 커플과 가족처럼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하면서 타인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무미건조한 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외로 인한 두려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 이웃, 동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격려해주는 '따뜻한 공동체 회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답은 간단하다. 나부터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는 '먼저 손을 내밀어 따뜻한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

오래전의 일이다. 필자가 휴직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는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다. 어느 교포 부부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에 관한 문제였다.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독일에서 나고 자랐기에 한국어보다 독일어가 익숙해 자연스레 부모와 대화가 단절됨은 물론, 학교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차별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모두 부모에게 돌리며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부부의 부탁으로 필자는 프로그램을 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퍼부었던 불평의 방향을 나에게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독일에 있는 동안 매주 만나면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논문을 제출하고 귀국하여, 한 학기 강의를 마친 후 그해 겨울방학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 다시 독일로 향하였다. 그런데 도착해서 만난 아이들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밝게 웃는 모습, 어색하지만 부모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을 반기는 표정이었다.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작은 노력이 아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구나'하는 생각에 매우 기뻤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시기에 필자도 타인에게 큰 도움을 받았었다. 같은 연구실의 독일인 동료가 논문 마무리로 쩔쩔매는 필자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함께 내용을 상의하고 독일어를 교정해주는 등 먼저 손을 내밀어 필자를 도와주었던 것이었다. 그 결과 박사 논문은 심사위원 전체 동의를 받아 외국 유학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등급인 '최우수' 논문으로 평정되었다. 필자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겪었던 이 경험은 먼저 마음을 열고 타인을 위해 노력하면 그들에게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통해 도움을 받는 '따뜻한 관계의 선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SNS의 사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친구, 이웃들과의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며 '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도 주지도 않으며 혼자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듯하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살아가다 보면 '그때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었나?'하고 후회한 적이 생각보다 많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고개를 들고 주변을 바라보며 먼저 손을 내밀어 보기를 바란다. 아마도 그 손길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종교칼럼

인생은 부평초 같아야

중현
광주 증심사 주지

일찍이 정약용 선생은 부평초를 일러 말하기를 "모든 풀은 뿌리가 있건만 부평초 홀로 뿌리가 없어, 물 위를 두둥실 떠도는 신세. 언제나 바람에 끌려 다닌다"고 하였다. 뼈 속까지 엘리트였던 선생은 귀양 가서도 항상 나라 걱정 백성 걱정뿐이었다. 그런 선생이었기에 연잎에 업신 당하고 마름에 칭칭 감기는 부평초를 보며 탐관오리들에게 핍박받는 백성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격조 높은 한시로 승화시켰다. 간간이 울리는 매미소리만이 적막을 깨는 어느 여름날 오후, 다산 초당을 혼자 지키며 연못 위 부평초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선생을 상상해본다. 아무래도 선생은 귀양살이에 지친 자신의 마음을 백성들 걱정으로 달랜 듯하다.

한편 20세기 들어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가객이었던 김광석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수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는 것"이라 하였다. 김광석은 비록 지금은 썩어갈지라도 봄의 새싹처럼 다시 일어나자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부평초를 그렇게 노래했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내 기억 속에서 걸망 메고 부평초처럼 떠돌던 삶이 아스라이 멀어져 버렸다. 물론 섣불리 판단할 순 없지만 삶이 한 곳에 정착한 것 같다. 그 곳은 물리적 의미를 포함함과 동시에, 물리적 의미보다 확장된 의미로 내게 다가온다.

물리적으로 나뉘는 대표적인 삶의 형태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이다. 소위 수도권의 시민들은 메가 시티의 생태계 안에서 유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안에서 그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개인으로 존재한다. 직장도 자주, 사는 아파트도 자주 바뀐다. 한때 노마드족이란 말이 유행했지만 기실 대도시적 삶의 본질을 낭만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지방 소도시에 뿌리내리고 살아보면 수도권의 삶이 왜 유랑형인지 금새 알게 된다.

지방 소도시의 시민들은 가시적으로 확인가능한 지역사회 속에 정주하여 살아간다. 개인의 삶과 운명을 지역사회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힘들다. 지역사회 속에서 개인의 익명성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지역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런 차이가 극명하다. 만약 태생적으로 지역사회에 속해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고 안 되고는 개인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대신 기존 지역사회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다. 일종의 객관적 기준이나 자격요건 같은 것보다, 지역사회가 품고 있는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일상적이고도 정서적인 수용이 더 중요하다.

개인의 삶을 놓고 보아도 삶의 방식은 유랑형과 정주형을 오간다. 어릴 적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선택의 여지없이 정주형의 삶을 산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방식이 유랑형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청춘의 특성 때문이다. 삶의 기반이 수시로 바뀌고, 일상을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자주 바뀐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사회활동에서 점점 멀어진다. 동시에 삶의 방식도 정주형으로 바뀌어 간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의 삶에 대한 기대수준이 현격하게 높아졌다. 더 이상 단칸방에서 달랑 수저 두 벌 놓고 신혼살림을 시작하던 시대가 아니다. 승가사회도 이런 추세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어딘가에 기대지 않고 홀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이제는 나이도 먹었다는 걸 실감한다. 몸도 고장났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 왠지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야만 할 것 같은 강박감이 몰려온다.

21세기 인류인 나는 인터넷으로 부평초를 본다. 수생식물인 부평초는 이름처럼 물 위를 여기저기 떠다니며 유랑한다. 그러나 물 속으로 내린 뿌리는 아주 길다. 스스로 자기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뒤집어지는 일이 없다. 물이 고요하건 거칠건 상관하지 않고 바람 부는 대로 몸을 맡겨서 시절 인연을 거부하지 않는다. 게다가 부평초로 많이 알려진 개구리밥은 의외로 다년생이다. 혹독한 겨울도 거뜬히 견딘다. 정약용 선생은 수면 아래 부평초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김광석은 혹독한 겨울도 견디는 부평초의 강인함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유랑형 인생은 부평초 같은 것으로 비유되는 반면 상식은 한 곳에 뿌리내린 정주형의 삶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이다. 인생은 부평초 같은 것이 아니다. 인생은 부평초 같아야 한다.

기 고

쓰고 버리는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의 전환

이민철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

8월부터 광산구 21개 동을 돌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마당을 열고 있다. 광주도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니 소각해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선 소각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들도 대부분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어디에 만드느냐다.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에는 안된다는 의견이 여전히 다수다.

광주시는 2차 공모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조만간 3차 공모를 시작한다. 3차에선 5개 자치구가 최소한 한 곳씩을 접수해야 한다. 소각장 부지 반경 300m 이내의 주민들 중 50%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데, 300m 이외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8월에 진행하는 1차 사회적 대화는 소각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불안을 줄이고, 광주의 쓰레기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다. 시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지 정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중이다. 자원회수시설 설치지역을 어떻게 조성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하며, 다른 지역 시민들은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고 책임을 분담할지 의견을 모아 광주시에 제안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며 쓰레기는 우리 문명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급 봉투에 버리는 온갖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이고 차량의 배기가스, 화력발전소와 공장의 폐기물과 온실가스는 얼마나 많은가. 인류보다 많은 수의 동물을 사육하는 축산시설의 메탄가스와 폐기물들은 또 얼마나 심각한가? 핵발전소 폐기물은 심지어 처리시설을 만들지도 못한 채 계속 가동중이다.

거대한 주택단지, 아파트단지가 노후되면 그 폐기물들은 또 어디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인류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지는 도로와 건축물, 공간들은 얼마나 숲을 파괴하고 농경지를 없애고 쓰레기더미를 양산하는가? 바다에 그냥 버려진 쓰레기는 또 얼마나 많은가? 그 결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들의 위기다. 지구생태계의 위기와 기후재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지구적 감염병이다.

인류 문명에서 쓰레기는 편리함의 다른 얼굴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편리를 추구할수록 쓰레기더미에 갇히게 되었다. 꼭 필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한정 사서 쓰고, 마구 버리는 시대를 살아왔다. 대표적 국가가 미국이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까지 있었다. 마구 사서 쓰고 버리고, 다시 사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세계 경제는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 규제가 진행중이고, 생활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규제도 점점 강해질 것이다. 올해 말 부산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발표되면 시대를 역행하던 한국 정부도 외면하고만 있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적게 사서 적게 버리고, 더 재활용하고, 더 나눠 쓰는 시대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보다 더 풍요로울 수 있다. 인문과 문화의 힘이 단단한 사람들은 소비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자신을 위로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미니멀리스트들이 이미 다양한 풍요와 자유를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 자원순환과 공유를 키우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와 관계망도 만들 수 있다.

언제나 출발은 소수다. 먼저 느끼고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움직이면 된다. 세계적 흐름상 속도도 점점 빨라질 것이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유심히 관찰해 대안을 만들어가자. 먼저 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 공기와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찾아 해법을 만들자. 태우면 다이옥신 등의 유해가스가 걱정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달용기 쓰레기부터 고민해보자. 일회용품의 천국인 장례식장 문제도 지혜를 모으자.

혼자는 어렵고 재미가 없다. 광주는 80%가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어볼 수도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이웃들이 함께 하면 정책을 만들고 시스템을 바꿔갈 수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유럽의 에너지 전환을 가져온 것처럼 행정과 정치권, 시민사회가 이번 사건을 전환의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社說

5·18 폄훼하는 '정당 현수막'은 무법지대인가

5·18을 폄훼하는 정당 현수막이 난무하는데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광주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광주시가 조례를 제정해 이런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려해도 상위 법 위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라니 개탄스럽다.

5·18 폄훼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다. 지난해 6월 자유민주당이 금남로와 광주시청, 5·18기념공원 등지에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현수막에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가짜 유공자 공무원은 사죄하라" "5·18 가짜 유공자는 국민혈세를 횡령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광주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5·18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근 정당 현수막은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격, 표시·설치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광주시의 조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문제가 됐다. 결국 광주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 5·18을 폄훼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응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지난 14일 가가호호 공명선거당이 "북한이 개입해 일어난 5·18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광주시내 곳곳에 다시 5·18의 명예를 실추하는 정당 현수막이 나붙고 있다.

상위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법을 지적한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5·18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정당 현수막을 묵인하는 것은 법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 오죽했으면 광주시가 5·18왜곡 처벌법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정당 현수막에 대처하겠다고 하겠는가. 정부와 정치권은 끊이지 않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을 재정비 해야 한다.

코로나 재유행… 개학철 학교 방역에 만전을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주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개학함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는 지역을 막론하고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도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최근 한달 새 무려 5배 이상 늘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가 개학한 그제 오전, 각 학교 앞에는 함께 온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스크를 고쳐 씌워주는 등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역력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탓에 학부모들이 밀집된 교실에서의 감염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에서의 코로나 확산세는 7월 초부터 시작돼 이달 초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5개 대형병원에 신고된 코로나 환자는 7월 둘째 주 4명을 시작으로 매주 2~3배 가량 증가하더니 최근 일주일 새는 74명의 환자가 나왔다. 5개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의원의 환자와 자가진단을 통해 감염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환자 등을 포함하면 코로나 환자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유행은 엔데믹 과정으로 이달말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진정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현 상황을 심각한 단계로 보지 않고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은 현재 백일해와 수족구 등 감염이 빠른 질병들도 유행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위력이 예전 같지 않다지만 여전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은 치명적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보건당국은 팬데믹 시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의심시 진료 병원과 치료 병원 목록을 작성, 시홈페이지나 학교 등에 배포해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와 노약자를 위한 심야 코로나 진료병원 연결 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변방의 북소리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지도부에 광주·전남 정치인은 포함되지 못했다. 권리당원 33%가 호남에 있는데도 당 대표는커녕, 번번이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낙마하고 있다. 이유는 '호남 정치 약화'가 꼽히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호남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좌절을 맛봐야 했다. 호남 정치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통해 서로 협력했다. 가령, 최고위원 경선을 앞두고 광주·전남과 전북이 번갈아 가며 출마를 하거나 주요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도 일정한 순번을 정해 호남 내 지역을 안배하면서 필요 이상의 '고향 내 다툼'을 방지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이후 이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과 전북이 각기 경쟁을 했고, 결과는 매번 패배로 이어졌다. 특히 광주·전남 의원 간 상임위 배정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호남 정치력 약화는 공천 과정도 중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에서 매번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지면서 이 지역 정치인은 공천권을 쥔 지도부 눈치만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정 정치인 이름만 들먹이면서 국회에 입성하는 경우가 잦다 보니 지역과 지역민을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는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이름을 활용해 국회에 입성한 일부 국회의원은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할 뿐 지역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지난 총선 당시, 광주·전남에 내걸린 출마자 플래카드와 명함을 떠올리면 호남 정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엿볼 수 있다. 자신의 이름보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더 크게 사무실 간판에 내걸거나 함께 찍은 사진으로 도배했다. '보여줄 것이라고는 이재명 밖에는 없는 사람들'만 넘쳐나면 호남은 더욱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해마다 초여름 도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 중 하나는 국회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홍보 플래카드다. 하지만 올여름 광주 도심에서는 이 플래카드가 드물다. 광주 8명의 국회의원이 확보한 광주시 상반기 교부세는 총66억원에 그쳤다. 반면, 대전은 7명의 의원이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